

【특집】 지식 지배사회의 빛과 그늘

지식의 지배: 성격과 과제

김 남 두*

I. 서론

변화에 관한 담론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문명의 전환이 진행중이며 그래서 새로운 삶과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변화와 새로운 시대에 관한 담론이 넘치는 것은 세기가 바뀌고 천년이 바뀌는 드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데에 일단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 사실에만 이유를 돌릴 수 있을 만큼 일이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감지하고 있다. 자신이 사는 시대가 변화의 시기라는 생각은 거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의 폭은 광범위하고 속도는 급격하다. 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위치 지우려는 요구는 변화가 심한 시기일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변화가 심하다는 것은 바로 통상적인 삶의 관행을 통해서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그런 만큼 미래의 불투명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오지 않은 앞날의 불가측성과 이에 따른 불안정함을 넘어서고자 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계몽의 이념 아래 전개된 근세 학문은 이전의 占筮체계와 달리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앞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전 영역에 걸친 학문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은 혼돈스럽고 앞날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불투명함이 아니러니칼하게도 바로 학문의 발달과 지식의 증대에서 그 가장 큰 원인이 찾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일까?

이즈음 한국에서의 지식에 관한 담론은 정권이나 매스컴의 홍보, 영업전략과 뒤

* 서울대, 철학과

2 특집: 지식 지배사회의 빛과 그늘

섞여 혼탁하다. 그러나 오늘의 변화에서 그리고 그 변화를 설명하는데 지식이 하나의 열쇠개념이 된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 지식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었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능력이나 응용능력이 기업이나 국가에 모두 생존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주장도 부인될 수 없다. 인터넷이나 여타 새로운 전자매체들이 단순히 경제뿐 아니라 교육, 문화, 정치영역은 물론 일상 삶의 영역에 불러오는 심대한 변화를 우리 자신도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다. 지식지배시대라는 얼마간 생경한 말로 이 시대와 앞으로 오는 시대를 규정하면서 우리는 왜 지식이 삶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려 한다. 지식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그리고 지식의 지배는 어떤 문제를 지니는가 등의 물음이 대답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이 일의 원인도 단순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위의 문제들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단순하지 않은 사안들에 관한 단순한 스케치의 성격을 지니는 이 글에서 필자는 ‘지식의 체제’라는 아직은 채 정리되지 않은 개념을 통해 문제에 접근해 보려한다. 이 개념을 통해 지식 지배의 모든 측면을 밝히려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측면, 그러나 아직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점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II. 지배와 지식

지식과 지배가 연결된다는 생각이 오늘날 비로소 시작되고 일반화된 생각은 아니다. 동서양 모두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이 생각이 추적될 수 있다. 중국역사의 신화기에 속하는 堯나 舜은 그들의 지혜 때문에 후대에 통치자의 모범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칭송되었다. 조선조 500년은 인류의 역사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운 지식인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경서를 흘륭히 해석하고 詩를 통해 자신을 뛰어나게 표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의 직책과 사회적 명예가 부여되었던 국가가 조선이었다. 서양의 경우 지식이 지배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실제에서 보다 이론적으로 분명히 언명되고 체계화된다. 잘 알려진 철인통치라는 플라톤의 주장은 이 분명한 경우의 가장 오랜 예라 할 수 있으며 서구 근세철학의 경우 베이컨의 ‘새 아틀란티스’에서 우리는 근대적 지식과 지배를 연결시키는 분명한 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철인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플라톤 주장의 핵심은 암과 권력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통치 작업을 특별히 '철학'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면서 그는 두 종류의 지식을 구분하고자 했다. 하나는 전문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전문지식을 통괄하는 종류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통치와 관련된 지식은 전문지식이기보다 이 전문지식의 올바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이라고 플라톤은 생각했으며 이 지식을 구현하는 사람을 철인이라 명명했다. 사실 플라톤은 국가 자체를 일종의 지식의 결합체로 생각했다. 그가 이론적으로 구성한 최초의 국가는 네 사람의 工人들로 이루어진다. 네 工人이란 농사짓는 이, 건축인, 옷 만드는 이, 제화공을 이르는데 이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일에서 전문가이기를 요구받는다. 이 최초의 국가는 따라서 네 전문인들의 분업 원칙 위에 세워진 국가였다. 개인 수준에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할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이 공동체의 수준에서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은 각자가 지닌 능력의 전문적 발휘를 통한 협동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체의 기능은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타고난 능력을 전문능력이 되도록 조직하는데서 제대로 실현된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었다. 이 분업의 체계에서 통치의 기능이 추가되는데 이 기능이 특별한 점은 그것이 지니는 부분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선을 실현할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몫 뿐 아니라 타인의 몫까지 생산하는 여타 공동체 구성원들의 업무도 공동선을 향해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정치적 업무가 특별히 공동선에 향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암이 지니는 여타 암과의 차이 때문이다. 개별 직역에서의 암이 해당 직책과 그것의 실행에 관한 '전문적'인 것임에 비해 정치적 암은 개별 직역들의 일을 전체의 선과 관련하여 조정 결정하는 전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치적 일을 여타 일처럼 정치영역에 관한 전문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해도 이 전문성은 전체의 선에 관한 전문성이요 이런 점에서 부분적 성격을 넘어서게 된다. 플라톤이 말했던 철인이란 이 같은 전체에 관한 암, 공동선에 관한 암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며 철인 통치론을 통해 그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국가의 지배가 각 전문분야에 관한 암 뿐 아니라 이 같은 전체에 관한 암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의 문헌을 서양 최초의 정치철학서로 본다면 서양 정치철학은 그 시초에서 이미 지식 국가론을 설파하고 있다는 말이 가능하겠다.

비교적 길게 언급되었지만 지식과 지배에 관한 이런 논의는 플라톤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 근세사상에서 지식과 통치를 연결시키는 알려진 예를 우리는 베이컨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게 정치가란 군주나 국가 그리고 관직에 복무하는 자이면서

4 특집: 지식 지배사회의 빛과 그늘

동시에 학문에의 복무를 통해 인간으로서 ‘신의 창조 작업에 함께 하는 자’로 규정된다. 그의 유토피아를 그린 ‘새 아틀란티스’(Nova Atlantis)에서 이 생각은 ‘살로몬의 집’이라는 학자들의 집단으로 구체화된다. 국가는 이 학자집단의 연구를 위한 모든 재정적 뒷받침을 하지만 스스로 연구에 간섭할 권한은 가지지 않으며, 이 학자지배자집단은 공동체 전체의 선을 위해 신이 창조한 자연을 조사, 연구한다. 이들의 연구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가능한 최대의 한도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자연의 운행과 그 원인 그리고 숨겨진 힘을 드러내는데 향해진다. 자연의 운행원리를 아는 일은 자연의 힘을 인간에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한 지침을 얻는 일이며 경험적 지식의 탐구를 통해 우리는 이같은 암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미완의 이상국가에서는 자연을 이용하기 위한 지식의 탐구가 강조되는데 이 점에서 플라톤의 국가에서 통치자 그룹에 요구되던 지식의 성격과 차이가 지적될 수 있다. ‘신의 창조 작업에 참여하는 자’라는 인간 규정은 베이컨에게서 문제되는 지식이 보는 지식이 아니라 만드는 지식이라는 점을 드러내 준다.

사실 고대나 근세의 이 사상가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식이 정치공동체의 통치작업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지배 혹은 통치라는 말이 여러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겠지만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욕구를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여러 수준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작업이다. 그것이 물자의 생산이나 관리에 관한 지식이건, 공동체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식이건 또는 권력이나 명예의 배분에 관한 정치적 차원의 지식이든 지배와 관련하여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플라톤이나 베이컨의 경우 이같은 지식이 통치자 그룹에 구현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이 그린 국가에서 지식과 지배의 연결은 지식인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지식을 지닌 자의 지배, 혹은 지식을 지배하는 자의 지배는 항상 있어 왔으며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지식을 가진 자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삶의 유지에 보다 복잡한 암이 요구되고 이 복잡한 암에 접근하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되면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III. 지식의 지배

지식의 지배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는 아는 자의 지배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지식과 지배의 연결에 관한 앞의 논의에서는 인간이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설정되면서 두 개념이 연결되었다. 이같이 얇을 지닌 인간의 지배와는 달리 지식 자체의 지배라는 측면에서 지식의 지배라는 문제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지식의 지배란 지식을 지닌 자의 지배를 뜻하기보다는 지식 자체가 지배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사태를 말한다. 지배가 의지적인 존재가 자신의 뜻을 지배하려는 대상에 부과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 규정한다면 지배란 행위자, 그것도 의지적 행위자에나 적합한 개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배라는 말은 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연 법칙이 자연을 지배한다고 할 때, 이 자연은 반드시 의지적인 존재일 필요는 없으며 이런 경우 법칙의 지배란 자연 현상의 진행이 이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자연이 생명을 지니고 스스로의 의지를 지닌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은 지금도 가능하겠지만 알려져 있다시피 근 세 이후 자연 이해의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자연의 죽음, 죽은 자연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기계적 자연세계에서의 법칙의 지배라는 말이 살아있는 자연을 이야기하던 시대의 어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칙의 지배라는 말에서 지배가 비유적인 어법이든 이미 비유 단계를 떠나 파생적 의미로 정착된 표현이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자연법칙의 지배가 의미있는 말인 것처럼 지식의 지배라는 말 역시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다. 지식 자체가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지식의 지배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더 잘 그리고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사태가 있다면 이를 밝히는 일은 지식지배의 실상을 밝히는 일 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 자체의 지배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밝혀지는 사태란 어떤 것인가가 문제이다.

위에서 자연 법칙의 자연지배를 이야기했지만 이는 자연의 변화 혹은 자연의 운행이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자연과 그 법칙 사이의 관계가 지식과 인간 사이에 혹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대상과의 사이에 성립할 수 있을까?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자 할 때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하겠지만 이는 자연 또는 자연 법칙과 인간과의 관계가 자연법칙과 자연과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행위라는 말이 의미있게 이야기될 수 있고 따라서 행위 영역이 단순히 자연의 필연적 운동으로 기술되지는 않는다면 자연법칙과 인간 행위의 관계가 자연법칙과 자연과의 관계처럼 이해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될 수 있다. 자연법칙이 인간이 비켜갈 수 없는 필연적인 제약이기는 하지만 인간 행위가 자연법칙에의 조회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

6 특집: 지식 지배사회의 빛과 그늘

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가지는 자기이해이다. 따라서 자연에 관한 혹은 자연 법칙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택의 여지 없는 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될 수 있다. 인간의 행위를 선택과 자유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 행위의 영역이 자연의 인과적 필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음을 의미할 것이다. 지식이란 인간 행위가 위치한 필연과 선택의 틈새에서 자연이 부과하는 필연을 인식함으로써 선택과 자유의 폭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요구로부터 성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연의 제약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이 제약 아래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진행을 예측하기 위해 여러 암의 체계들이 문화권에 따라 형성되어 왔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周易이 이같은 암의 체계의 토대를 이루어 왔으며, 기타 다른 전적들이 문화권에 따라 자연을 이해하고 앞날을 예측하려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왔다. 그러나 문화권에 따른 자연의 상이한 이해는 오늘날 더 이상 예전의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 인간이 본격적으로 문자를 사용하며 삶을 영위해 왔던 지난 3000년 여의 기간 동안 자연에 관한 여러 문화권들의 암의 체계 가운데 하나의 체계가 여타 체계들을 제치고 자연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유일한 체제의 자리를 구축해 왔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과학이라 부르는 암의 체계는 자연에 관한 진정한 암의 체계라고 여겨지고 있다. 물론 자연에 관한 여타의 체계들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며 이 자연이해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아울러 자신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사태의 진전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세계 곳곳의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자연’에 관한 지식은 거의 통일되어 있거나 통일되어 가고 있다. 이런 사태의 진전이 이 특정한 지식이 전적으로 그리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떻든 이 특정 지식이 일반화되어 간다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실은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의 지배라는 말을 통해 먼저 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태이다.

지식의 지배라는 말은 우선 자연과학이라는 특정 지식의 이같은 보편적 확산을 이른다. 지난 3000년 인간 역사는 여러 방식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겠지만 이 특정 지식이 스스로의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으로도 특징지어질 수 있다. 지식의 지배란 이런 의미에서 지식 일반의 확대라기보다 특정 지식의 확대 보편화 현상을 이른다. 지배란 말이 여기서 엄격한 의미에서 쓰인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이 말은 지배적인 지식의 형성이라는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물음은 왜 이 지식이 시간을 넘고

인종과 종교, 풍습의 차이를 넘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과학지식의 확대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과학 지식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오늘 날의 형태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근세 과학혁명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과학지식의 일반화란 최근 300년래의 일이며 이 300년의 역사를 토대로 3000년 암의 역사를 되집는 것은 얼마간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이 300년의 진전과정은 크게 지난 3000년 서양 문자문화 역사의 진전과정이라는 맥락 아래서 검토될 수 있으며 이 검토는 어떻게 최근 300년이 지난 3000년의 연속이면서 또한 어떤 점에서 새로운 시기인지 를 보여줄 것이다. 지식의 한 형태로서 과학지식도 본질적으로 서양 문자문화 체계의 한 발전형태이다. 서양 문자문화의 진전이 여러 방식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지만 이 진전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서구적 학문체계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체계의 형성이 서구 문화를 다른 문화와 가르는 가장 선명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IV. 서양 학문체계의 형성과 특징¹⁾

서양사회에서 구전문화로부터 문자문화로의 이행은 기원전 8세기 희랍에서 일어난다. 발화되면서 사라져버리는 말을 주요 소통매체로 가지던 구술문화와는 달리 문자문화는 문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억방식을 통해 많은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이야기 내용이 이야기되는 순간으로부터 분리되어 문자를 통해 기억될 수 있게됨에 의해 사라지는 말의 용이한 기억을 위해 형성되었던 제반 질서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들이 등장한다. 이 새로운 질서는 요소의 질서, 분석의 질서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말하는 행위의 순간과 말의 내용이 분리될 수 있고 이와 함께 말의 내용이 말하는 순간의 상황과 독립되며, 말의 형식과 분리될 수 있게 된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분리되고, 말 자체가 가지는 분석적 요소가 강조, 확장된다. 말은 사태를 우선 주어와 술어로, 여러 상이한 기능의 품사들 그리고 일련의 진술들의 체계로 분해 한다. 표음문자의 경우 말 자체가 자음과 모음 그리고 자모를 이루는 여러 철자들로 분석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문법으로 번역하는 grammatische란 고대 희랍에서 엉겨 있는 소리를 이런 단위들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의미했다. 말이 지난 이런 분석적 성격은 문자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분명히 의식되게 되고 이같은 분석적 성격은 말

1) 4장의 내용은 『현대학문의 성격』(민음사, 2000)에 실린 필자의 논문 “매체의 변화와 삶의 변화”의 내용의 일부에 약간 가필한 것이다.

8 특집: 지식 지배사회의 빛과 그늘

자체의 구조에서 뿐 아니라 이 말을 통해 표현되는 다른 영역들에의 접근에서도 강하게 부각된다. 문자의 도입 이후 이같은 요소에로의 분화작업은 서양에서 기원전 6세기부터 자연철학자들의 작업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비롯한 다원론자들의 이론적 작업은 이같은 분석작업을 통한 세계 설명 시도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플라톤의 이데아 가설이나 분할의 방법(dihairesis)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론 전서> <분석론 후서> 등의 저술을 통해 방법적으로 세련화 과정을 거치며 기원전 3세기 전후 요소라는 의미의 <stoicheia>라는 제목을 지닌 유클리드 기하학 체계에서 일단 체계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서양학문의 체계화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이루는 분석이란 설명되어야 할 사태를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에로 나누어 가는 작업이다. 이 요소들이 요소라고 이야기되는 이유가 그것이 지니는 불변적이며 자기동일적인 성격 때문이며 분석작업을 하는 이유도 이 분석을 통해 이같은 요소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요소들이 지니는 불변의 동일성을 통해 사태의 제반 측면이 설명되고 이해된다.²⁾ 이 불변하는 것이 원자론자들의 경우처럼 물질의 차원에서 성립하건 혹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나 에이도스처럼 비물질적인 것에서 성립하건 또는 유클리드 기하학 체계에서처럼 定義나 公理같이 명제 수준에서 성립하건 이 과정들에서 사태의 설명이나 定理의 도출을 위해 추구되는 출발점(arche)은 항상 자기동일성을 유지하

2) 물론 분석이 반드시 불변의 구성요소의 발견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이란 나누고 쪼갠다는 말인데 나누고 쪼개는 일은 이 작업을 규제하는 외적인 목적에 의해 필요한 수준에서 멈출 수 있다. 집을 짓는 사람의 돌을 쪼개는 일은 집의 벽을 쌓기에 적절한 크기가 되면 멈추며, 행정구역으로 區나 洞을 나누는 일은 자리적 여건이나 행정 편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집짓는 돌의 경우 이것이 집의 외벽의 단위가 되나 이것의 단위로서의 크기가 다시 전체 집의 규모나 소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전체 집의 모습이 보다 기본적인 규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 구체적 개물이 형상과 질료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상과 질료는 개물을 구성하는 기본적 인자이기는 하나 독립적으로 의미있게 존재한다고 이야기되기 어려운 만큼 궁극적인 것의 위치를 부여받지 못한다. 음양오행론의 경우도 음양이나 오행이 기본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음양이나 오행의 경우 모두 다른 것과의 연관 속에서만 의미가 부여되고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전체의 연관을 떠나 독자적으로 궁극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되기 어렵다. 나누고 쪼개는 작업의 끝에서 불변하며 궁극적인 실재가 주어지리라는 생각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여러 수준에서 이같은 궁극적 불변항들의 복합물이라는 생각을 토대로 하고 있다.

며 불변하는 것들이라고 생각된 것이었다. 이같이 존재론적으로 모든 것들의 원리와 토대가 되고 인식론적으로 인식과 설명의 원리가 되는 것들은 한결같이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되는데 바로 이같이 당시 자기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이 이것들이 존재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특별한 위치 즉 다른 것들의 원리가 되고 출발점의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된다.³⁾ 근세 이후 두드러지는 법칙적 세계파악이나 현대 정보통신체계의 기본 단위가 되는 비트의 경우에도 이 불변하는 자기동일적 요인의 추구는 마찬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f=ma$ 혹은 $e=mc^2$ 으로 표현되는 자연세계의 질서는 힘이나 에너지, 질량, 속도와 같은 기본 요인들의 함수관계로 환원되는데 이 관계는 자연세계의 모든 경우에 항상 타당하다고 가정된다. 자연세계든 인간세계든 이 세계 내에서 항상 질서를 찾는 작업이란 기본적으로 불변하는 요인이나 관계의 추구라고 이야기될 수 있다. 이 불변하는 것들이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주로 한계지워진 개체나 사태에서 추구되건 혹은 근세 과학에서 두드러지듯 법칙적 관계에서 추구되건 반복되면서도 항상 동일하게 있는 것을 찾아가고 드러내는 일이 학문 작업이 의식적으로 추구해 왔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⁴⁾ 따라서 서양의 학문체계란 동일성 원리의 토대 위에 서있는 체계라고 이해될 수 있다.

서양의 학문체계에서 고대 그리스 아래로 수학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왔던 이유도 이점과 연관해 설명될 수 있다. 서양 학문의 역사에서 수학의 위치는 위에서 잠시 언급된 대로 일차적으로 이 학문이 지니는 공리적 증명 체계(axiomatic proof system)의 엄격성과 명료함에 의해 규정된다. 피타고라스 학파와 플라톤의 아카데

3) 이론의 형성에서는 모델의 설정이 주요 역할을 하는데 이 모델 설정이란 이론 형성의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과 종합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모델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분석의 궁극 단위가 설정되는 방식이나 이 단위들이 상호 관계하는 방식 또는 이 과정의 보다 세분된 하위과정에서도 모델설정의 작업이 이루어 진다. 동일성의 공유란 물론 이 모델의 공유 차원에서도 의미있게 이루어 진다. Kuhn의 paradigm이란 하위 수준에서 소단위의 모델들을 포함한 거시적인 수준에서 과학자 집단에 의해 공유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물론 이 말이 학문이 추구하는 바가 모든 것을 무차별하게 동일화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러 레벨에서 동일한 것을 찾는 일은 동시에 이 같음을 가능하게 하는 다름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같음과 다름이 이렇게 궤도처럼 함께 달리는 것임에 틀림 없지만 학문의 동일한 것 추구 작업이 그것이 보여주는 반복적 동일성 이외의 것들을 추상하고 도외시하게 하는 작업임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 이기도 하다.

10 특집: 지식 지배사회의 빛과 그늘

미를 중심으로 3세기에 이르는 형성과정을 거쳐 기원전 3세기초에 이루어졌던 이 공리적 증명체계는 이후 서양학문체계의 모범이 되어왔는데 이것이 모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이 체계의 분석성에서 연유하는 증명과정의 엄격함과 이에 따른 증명의 보편적 필연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증명들은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반증(falsify)되는 법이 없는데 이같이 때와 장소,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타당한 체계의 성격이 모든 체계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증되는 법이 없이 항상 필연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증명된 명제가 시간과 지역을 넘어 변함없이 항상 타당하며 따라서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이같은 불변의 동일성이 학문 체계의 이상이 될 수 있는 요인이었던 만큼 수학의 체계는 동일성 이념의 전범이요 화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막론하고 수학지식은 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넓게 공유된 암의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근세 이후 서구 과학이 자연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체계로 자리잡게 된 것도 수학적 언어를 통해 자연을 기술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이같은 형식체계는 공간 이해의 근본적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하는 공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 공간이 포함하는 제반 요인들이 사상되어 순수히 공간적 관계만이 타당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無色, 無臭의 공간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그 안에서 성립하는 모든 관계들에 전연 영향을 주지 않고 이 관계들을 변화와 시간을 넘어선 것일 수 있도록 한다. 定義를 통해 내포와 외연이 엄격히 한계지워진 것들의 관계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공간에서 성립한 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이며 이는 간략히 동일성의 공간 내에 성립한 동일성의 관계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심적이건 물리적이건 모든 영향요인이 제거된 이같은 공간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공간 내의 모든 것을 그 자체로서 성립시키며, 이같은 공간에서 제거되는 것은 물리적 힘뿐 아니라 물리계를 넘어선 초자연적 힘들이 포함된다. 어떤 것들을 변화시킬 모든 힘이 제거된 만큼 이 공간에서는 모든 것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데 이 동일성의 공간의 성립은 적어도 서양학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근세초 물체의 본성을 순수히 연장적(extensional)인 것으로 규정한 데까르트에 의해 물리적 공간에서 물리적 힘 이외의 모든 보이지 않는 힘들이 제거되면서 근대물리학이 성립한다. 이같은 순수히 물리적 공간은 이 공간 내에서의 제반 변화가 수학적 언어로 기술될 수 있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 언어로 기술된다는 것은 작용하는 제 요인들이 양적 단위들의 수적 관계로 표현되는 것인데 근세 이후 실증과학의 성공은 실증 영역의 수리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 수리화 작업은 시간을 필두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서 질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역들을 양적 단위들의 수적 관계로 환원하고 무색의 중성적 공간을 형성시키면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무색의 공간은 반복이 가능한 공간인데 반복 가운데에서도 자기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공간의 특색을 구성한다. 수란 양적인 단위의 반복빈도인데 이 빈도 이외에 자기동일성의 요인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수라는 존재의 광범위한 적용가능성을 보장해 준다. 정보의 단위인 비트란 2진법 수의 질서로 수체계의 한 경우가 정보전달체계에 이용된 것이다. 이 2진법의 단위 역시 0과 1사이의 차이 이외에 스스로의 正體요인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무한대의 적용영역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수의 양적 반복 이외에 정체성을 구성할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 수로 구성되는 체계의 보편적 적용가능성과 명료성의 원인이 된다. 수라는 존재의 이같은 특성은 수를 통해 체계화되는 것들의 성격 또한 규정하게 된다.

서양 문자문화의 진전 방향은 이같은 분석적 질서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이 동일성의 지반 위에 세워지고 체계화되는 방향이었다. 동일성의 체계와 그 확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서양학문의 진전은 인간 삶의 체제를 보다 확고한 동일성 체계 위에 서게 하는 지속적 과정으로 생각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제도가 일단은 상이한 여러 차원에서 동일성을 추구하는 만큼 동일성의 추구 자체가 학문과 관련하여 특별한 것이라고 이야기될 것은 아니다. 동일성의 체계로서 학문이라는 제도에서 특별히 의미있게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여기서 성립하는 동일성의 성격이 여타 제도에서 성립하는 동일성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이다.

문자체계로서의 학문체계는 문자를 통해 발화된 것이 사라지지 않고 보전될 수 있다는 단순한 시간상의 보전이나 기억을 넘어서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학문에서 가능하게 되는 이 기억의 체계는 형상적 기억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 기억의 체계가 시간 내에서 어떤 것의 동일성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데 대해 형상적 기억이란 시간을 넘어서는 질서의 파악과 구현을 통해 동일성을 확보하려는 체계이다. 형상적 기억이란 기억되고 보전되어야 할 사항들을 그것의 형상적 요인으로 나누고 이것을 이해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단순히 시간상에서 어떤 내용이 유지 보전됨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파악됨으로써 적어도 이 초시간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시간상의 차이와 변화를 넘어서려는 것이 학문

12 특집: 지식 지배사회의 빛과 그늘

체계가 추구하는 기억의 전략이다. 시간에 따른 차이를 넘어서고자하는 시도인 만큼 이 체계는 시간 자체도 가능한 한 제어 가능한 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시계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 시간은 선후의 차이를 제외하고 모든 차이가 사상된 제어 가능한 시간의 표본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놓고, 시간까지도 예측 가능한 요인의 하나로 놓아 체계화하려는 학문의 동일성 전략은 시간을 넘어서는 동일성이 가능한 것만을 세계구성이나 설명의 요인으로 삼음으로써 시간과 변화를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이같은 시도는 인간의 지적 능력 가운데 이성이라 이름 붙여지는 능력에 의해 수행되며 바로 시간 내에서 현상하는 것을 넘어 초시간적인 것을 파악하는 능력 때문에 유럽학문과 유럽문화에서 이성에 특별한 위치가 주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이란 바로 이같이 시간을 비시간화하는 작업이다. 기억이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앞에서 규정했거나와 형상적 기억은 과거와 현재의 구분을 넘어섬으로써 영속적인 현재화를 시도하는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V. 지식의 체제

위에서 진행된 논의에 근거하여 서양과학의 지식체계가 왜 시대와 지역을 넘어 자연에 관한 보편적인 체계로 확대되어 왔는지에 대해 대답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먼저 서양 과학의 지식 체계가 보편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시간이나 장소, 인종이나 종교의 차이를 넘어 보편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런 보편적 이해가능성은 수학이라는 기술수단의 보편성과 필연성, 그리고 명확히 규정된 관찰, 검증의 공유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보편적 이해가능성은 한가지 조건이 더해질 때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된다. 그 조건이란 이 지식에 근거하여 자연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짐이다. 개발이나 이용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개발, 이용을 이끌 지침으로서의 지식이 맞아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되는데 과학지식의 특성이 이를 보장한다. 후자의 조건이 덧붙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이 체계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즉 지식에 기초하여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하려 할 때 참인 한에서의 자연에 관한 지식은 행위자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명령자로서 다가오게 된다. 땅에 발을 딛고 걸어다니는 것에서부터 생명의 복제에 이르

기까지 자연을 이용하는 일이란 광범위하며 그런 만큼 우리의 삶은 실천적인 맥락 아래 있는 한 자연과 관계맺음을 벗어날 수 없다. 살아있는 한 자연이 명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앞에서 우리는 지식 자체의 지배를 이야기한 바 있다. 방금 이야기된 맥락에서 지식 자체의 지배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해 한 단계 진전된 대답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자연을 단순히 이해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용에 적합한 암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개발, 이용은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없으며 개발, 이용의 규모가 크고 복잡할수록 이에 요구되는 암이 엄격히 방법적으로 확보된 참의 체계이어야 할 필요성도 증대한다. 자연을 이용 개발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그 자연에 관한 지식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 된다. 이용 개발이라는 행위목표와 결합되어 그 타당성 요구가 제기되는 자연의 명령은 일종의 가언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는 지식이 문자 그대로 그같은 목표를 가진 자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연의 성공적인 개발, 이용에 요구되는 지식이 자연에 관한 지식만일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을 개발하는 작업에는 사람이 함께 간여하며 간여하는 사람들의 협력이 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필수적이라면 이 조건 또한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즈음 논의되는 이른바 지식경영이란 이런 인적 요인이나 기타 생산과 기업목표에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일종의 관리대상으로 보고 이를 정보 내지 지식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인간의 선택행위가 관리적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선택이라는 자유에 기반한 행위도 측정가능한 범위에 넣어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 체계 전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기업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에 언급된 사안에 근거하여 우리는 지식지배라는 말의 세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할 수 있다. 특정 형태의 지식이 시간과 지역의 경계를 넘고 이 형태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배적인 지식형태가 된다는 의미에서 첫번째 지식의 지배를 이야기했으며, 특정 지식이 따라야 할 지침이 되어 인간 행위를 규제하고 명령한다는 의미에서 지식의 지배를 두 번째로 이야기했다. 세 번째 의미에서 지식의 지배는 전통적으로 과학의 형식에 따라 접근될 수 있는 지식영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분야가 과학적 지식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이런 영역확대가 일반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근세 이후 물리학, 화학을 비롯한 자연 영역의 과학화에 이어 경제학, 지리학, 심리학 등 사회 영역의 과학화가 진행되고 경영학, 행정학 등 실무영역의 과학화가 이어진다. 비자연 영역의 자연과학화나 자연과학 모델의 차용 경향은 계속 심화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위에 지적된 바와 같이 자연과학화란 본질적으로는 대상

14 특집: 지식 지배사회의 빛과 그늘

영역의 수리화 혹은 형식화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수리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수학적 추론의 엄정성과 그에 따른 지식으로서의 공유가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수리화 방식이 제작과정에 적용될 때 공학이 성립한다. 공정의 수리적 엄격화는 정밀기계의 발달로 연결되고 생산의 대량화를 결과하는데 과학지식과 제작의 결합이라고 할 공학은 수리화된 특정지식의 지배확대에 또 하나의 큰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지배의 네 번째 경우라고 할 이같은 제작의 공학화 경향 역시 이 결과 산출방식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때문에 일정 정도 양적 제어가 가능한 여타 사회 영역에도 적용영역을 확대해 간다.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특정 목표의 산출과 제작의 연관 아래 편입시키는 사회의 엔지니어링화는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지구화되면서 급속히 촉진되는 측면으로 시장화와 맞물려 있다. 이 현상은 이른바 수단적 지식의 증가와 이를 조직적으로 생산, 이용하는 기술합리성의 증가로도 개념화될 수 있으며 신의 창조에 참여하는 자라고 베이컨이 근대지식인을 개념화했을 때 지칭된 지식인에 상응하는 지식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낮익은 개념화를 피해 특별히 지식지배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수단적 지식이나 기술적 합리성 등의 어법이 인간이 주체이고 주체가 자유로운 주체로서 설정한 목표에 인간이 발견하거나 개발한 지식을 이용한다는 식의 근세적 개념지도 가 오늘날 지식과 인간의 관계를 드러내 주는데 부적절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오늘날 지식은 진리를 탐구하는 개별연구자에 의해 발견된다기보다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연구자 집단을 통하여 생산, 산출되는 재화가 되었다.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이며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지식 이외에도 생산에 관련된 각종의 사회적 요인까지 관리되어야 할 지식으로 체계화되는 체제에서 지식을 단순히 주체가 설정한 목적의 실현 수단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실상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문제를 잘못 파악하게 할 위험을 지닌다. 오늘날의 지식은 특정한 방식으로 설정된 생존체제의 규제자로서의 위치를 지닌다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지식이 차지하는 위치를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관리대상으로 화하는 오늘날의 생존체제에서 지식과 주체의 위치가 전도되고 지식이 명령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현상이 지식지배라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형식의 지식이 명령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이런 현상은 위에서 지식지배라고 이야기된 일련의 경우들을 종합해 보면 그 성격을 좀더 분명히 볼 수 있다. 명령자의 위치에 서는 지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격은 그것이 수리적 질서를 지닌다는 점이다. 근세 자연과학이나 이 학문 이념에 따라 체계화되는 사회과학의 영역,

수리화를 통해 제작과정을 엄격히 절차화한 공학 그리고 지식지배의 마지막 모습으로 추가될 디지털 정보혁명의 경우까지 모두 수리적, 형식적 대상접근과 체계화를 공통특징으로 가진다. 지식의 체계화에 적용되었던 특정 결과물의 제작에 이용되었던 정보의 구성에 사용되었던 이같은 수리적 체계화와 구성이 선호되는 이유는 이미 지적된 수리적 질서가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서양문명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큰 변혁의 시기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 수리질서가 새로운 영역에 적용되어 지금까지 없던 것들이 생기고 사회가 이에 따라 재편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서양 역사를 구분한다면 고대세계는 수리적 체계이념이 성립되고 유클리드 체계에서 일단 첫 완성을 보는 시기요 근세란 지상의 운동영역에 이 체계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이미 고대 아래로 수학이 적용되던 천문학과 함께 천상 천하가 구분 없는 통일된 체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며, 과학과 기술이 결합하여 공학이 성립하는 시기, 2진법의 형식체계로 구성된 정보전달체계가 공학적 결과물인 하드웨어와 결합하는 오늘날의 시기 등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근세 이후의 학문사란 크게 물리학에서 시작된 수리적 체계화 작업이 자연과학의 여러 영역을 비롯하여 경제학, 심리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이었으며 금세기 이후 시작된 공학화가 진행되고 정보화와 결합되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이다.

세계가 변화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지만 그래서 이즈음은 문화의 세대 주기가 5년이 채 못 간다고 할만큼 그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지만 그 변화는 불변하는 하나의 토대 위에서 진행된다. 변화의 토대에는 지금까지 수리화되지 않았던 영역의 수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수리화는 삶의 모든 부면을 구조지우고 체계화하는 토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 체계 위에 수립된 질서라는 점에서 오늘의 세계가 보여주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하나의 질서 위에 있다. 이 질서는 자연세계뿐 아니라 근세인들이 주체라고 말했던 부분까지 서서히 잠식하며 보이지 않게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삶의 중심 체제의 동일화와 주변 영역에서의 다양화가 함께 진행되는 오늘의 변화는 이 동일화 과정을 통해 자신을 하나의 거대한 체제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하나의 시장이 성립하고 하나의 세계가 된다는 것은 이같은 변화의 현상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이런 규제자적 위치는 단지 개별 목표의 실현을 추구하는 자에게 목표 실현을 가능케 해주는 지식이라는 제한된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 지식을 따라야 한다는 방식의 특정화된 개별지식과의 관계를 넘어

16 특집: 지식 지배사회의 빛과 그늘

지식은 훨씬 광범위하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인간을 지배하고 규제하는 위치에 있다. 특정 목표에 대한 개별지식의 타당성은 개별지식의 타당성을 넘어 지식 일반의 성립가능성을 보장하는 자연의 이해를 요구한다. 이 지식의 성립이 보장되는 자연이해란 기본적 요소에로 분해 가능한 자연이며, 양적 단위의 함수들로 표현가능한 자연이고, 이렇게 표현 가능한 것 이외의 어떤 요인도 포함하지 않는 자연이요 그래서 천상 천하를 막론하고 聖域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한 법칙이 지배하는 동질적 자연이다. 특정 지식 형태가 요구하는 이같은 자연이해는 이 지식의 보편화와 함께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함께 우리에게 부과되고 우리를 지배한다. 이같은 형식의 지식이 적용되는 모든 대상을 이런 이해 방식으로 동일화시키는데 이런 대상에는 인간이 포함되기도 한다. 자연에 관한 이같은 이해의 전제 없이는 이 지식을 이용한 자연에의 접근이나 이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수단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지식을 이용한 자연에의 접근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을 특정 자연이해에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연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지식 자체의 요구이며 이런 의미에서 지식은 인간과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여러 수준에서 이같이 수리화된 세계질서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질서를 알지 못했던 훨씬 오랜 기간동안 인간이 생존해 왔고 그럴 가능성은 앞으로도 있다. 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앞에 지적했듯이 이 방식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 아래서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각 개인에게 이런 질서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할 자유는 주어져 있지 않다. 지식의 지배는 일종의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미 성립해 있는 이 체제 내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 체제에 적응하는 이외의 선택은 없다. 이같은 선택불가능성은 중세의 어느 마을에 태어난 사람이나 또는 더 이전의 작은 산골에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차이는 인류 전체가 비교하고 경우에 따라 선택가능한 여러 상이한 삶의 모습은 축소되고, TV 앞에서 광고방송을 보는 비슷한 삶의 모습 속에 통일되어 간다는 점일 것이다.

지식이 이같이 작동하는 체제를 일단 인간의 삶의 체제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삶의 체제는 생존을 도모하는 인간, 자연, 지식, 제도 등 여러 하위 단위들이 상호작용하는 단위이다. 오늘날 이 체제는 자기목적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말해 이 체제 자체의 유지가 다른 어떤 목표에 우선하는 방식으로 체제 내적 질서가 형성 된다는 것이다. 이 체제가 인간의 생존체제라면 체제 자체의 유지란 인간 생존 체제

의 유지, 그리고 생존의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 유지가 전 지구적 체제 유지의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개인이나 마을 또는 국가 수준에서 개인의 생존과 운명이 결정되는 것과는 전연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이 대규모 단위의 자기 유지를 위해 필요로 되는 것은 한 부족마을이 유지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과는 성격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교역규모, 투자규모, 경쟁단위 등이 달라지고 이런 규모의 단위가 유지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의 복잡성도 그 수준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런 대규모 체제에서는 바로 그 단일성과 대규모성 때문에 경제적 실패에서 오는 위험부담이 현격히 증대하고 따라서 경제의 유지와 운용의 중요성이 훨씬 부각된다. 거의 체제의 유지와 동일시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측면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이에 따라 사회의 다른 부문이 경제에 예속되는 경향이 심화된다.

이 체제에서 지식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교역이나 투자 규모의 증대에 따른 위험관리와 예측가능성에의 요구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수준에서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경쟁의 강도도 치열해지며 따라서 생산요소로서의 지식, 관리체계로서의 지식이 정치공동체나 기업 단위의 생존에 직결된 요인으로 된다. 대학이나 기업이 격한 구조조정을 요구받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지식은 이런 의미에서 체제유지 요인일 뿐 아니라 앞에 이야기했듯이 선행적으로 그같은 체제의 구성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체제는 이 지식에 삶의 외적 조건과 내적 가능성 모두를 구속받고 있는 지식의 체제이다.

지식의 체제도 그것이 체제인 한 어떤 종류의 자기재생산 기능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제외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 자기재생산 기능은 두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데 이 두 측면은 이 체제의 선택과 제외 작업의 기준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지식의 체제인 한 당연히 어떤 것이 지식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게 된다. 과학지식의 기준이 이같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지식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같은 선발과 제외작업은 단순히 개별 지식의 지식으로서의 합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같은 지식의 산출을 권장하고 그렇지 않은 것과 그에 관련된 일들을 부적절한 것으로 말리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을 함께 하게 된다. 교육기관이나 기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참인 지식이 가르쳐지고 학습될 뿐 아니라 과학적 태도, 과학적 세계관이 함께 바람직한 것으로 칭찬되고 권장된다. 과학적 접근방식이 적용 가능한 영역들을 확대해 가는 작업도 이런 맥락에서 함께 진행된다. 지식의 체제란 지식체계의 규범, 그리고 규범을 규범으로 받아들

18 특집: 지식 지배사회의 빛과 그늘

이고 따르며 지식을 탐구하고 전달, 교육하는 인간과 제도를 포함하는 일종의 자기증식 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VI. 과제

지식을 체제의 중심에 놓고 체제를 지식이 자기증식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앞에서 말한대로 지식을 단지 특정 목표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만 이해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식이 이같은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이야 부인할 수도 또 부인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식이 이렇게 수단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지니며 지식 자체의 이 고유한 성격은 특정 목적연관 내에서 지식이 수행하는 수단적 기능을 넘어 광범위한 자체 영향을 행사한다. 지식의 성격으로부터 유래하는 이런 영향관계는 특수한 목적 수단의 연관 내에서는 설명되기 어려운 것으로 지식을 자기증식하는 체제의 중심 위치에 놓는 소이가 된다.

지식의 이런 고유한 특징으로 이것이 수리적 형식으로 체계화되었다는 점을 이야기 했거니와 특히 이것들이 모두 수의 질서라는 점은 이런 맥락에서 좀더 주목될 필요가 있다. 수란 양의 크기를 표시하는데 양의 크기라는 것 이상의 正體要因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대상에 광범위한 적용가능성을 지니게 됨을 이야기했다. 이같이 수로 파악된 대상은 그것이 지닐 여러 요인들은 사상되고 오로지 이 수라는 관점에서만 보여질 때 수로서 기능하게 된다. 어떤 대상을 수로 해아린다는 것은 따라서 그 대상을 특정 양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일인데, 수의 적용범위가 거의 무한정하다는 점과 함께 이 사실은 우리가 대상을 보는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가 질적 경험대상이라 부르는 것들을 양적인 것으로 환원하면서 질적인 것에 관련되어 제기되는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고 이 요인들에 관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형식의 추론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수리체계의 질서는 여타 질서지움의 방식이 지니는 인식상의 난점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된다. 이같은 수리체계의 도입이 경험영역의 체계화에서 바로 진리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추리과정의 엄정성과 필연성이 확보됨으로써 체계의 신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바로 수리체계의 이런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이 체계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이를 적용하려 한다. 적어도 자연에 관한 설명체계에서 이런 수리적 형식체계를 대체할 다른 체계화 방식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런 점

은 이같은 설명체계를 선택사항이 아닌 일종의 필수사항으로 만들게 된다. 이 체계를 통해 설명을 시도하는 사람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다는 것은 수학적 질서화 체계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수학적 체계화의 확대는 이런 사정과 연결되어 있다.

대상영역에 대한 수리적 체계화의 확대는 해당 대상영역이 그런 방식으로 체계화 된다는 사실 이외에 일단의 부수되는 영향들을 수반한다. 수리적 체계화가 영역들을 가로질러 진행되면서 이런 경향은 가속되는데 영향을 주고받는 각 부문들 사이에 같은 척도가 성립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단일단위가 되고 하나의 시장이 성립된다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같은 범수량화 현상의 결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같은 범수량화의 토대가 없이는 세계의 단일체제화란 가능할 수 없다. 거대해진 체제의 여러 부면에서의 예측가능성 확보나 위험부담의 경감과 같은 일들은 방법적으로 엄격히 통제된 수리체계를 통해서만 어느 정도나마 가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체제란 이 지구적 단일체제가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식체제의 개념 아래 사태에 접근한다는 것은 이 단일체제가 자기 유지되는 전체 연관에서 체제유지적 지식의 위치와 역할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즈음 지식 경영이 기업조직을 지식의 체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듯이 전 지구라는 체제도 지식의 체계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같은 기업과의 유비를 통해 우리는 지식체제로서의 세계체제가 지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볼 수 있다. 기업조직이란 이윤의 추구라는 명백한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기업 내부의 모든 요인이 이 목표에 비추어 질서지워 진다. 기업조직의 자기점검도 이 목표에 비추어 이루어지며 그 이상의 작업은 기업조직과 이 조직의 지식체계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세계체제의 경우도 그것이 삶의 체계니 만치 이 목표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체제는 기업조직과 한가지 점에서 작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기업 조직이 그것이 속한 국가나 사회의 다른 기능들에 의해 전체 내에서 그것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받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외부에 이 역할을 규정, 평가할 심급을 지니는데 비해 인간의 삶의 체제로서 단일화된 세계체제는 이같은 자신 외의 오리엔테이션 심급을 가지기 어렵다. 이 세계체제의 중심적 구성요인이라 할 지식체제는 그 자체가 수리적 질서를 통한 체제의 자기유지에 정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특정 지식형태가 이 세계체제의 자기유지 방식을 규정하는 상호규정적 연관이 형성된다. 세계체제의 경우는 기업 조직의 경우처럼 조직 밖에서 이 조직의 역할이나 방향을 규정해 줄 다른 심급을 가지지

20 특집: 지식 지배사회의 빛과 그늘

못한다. 거대체제가 자신의 생존을 특정방식으로 유지하지만 이 특정방식은 다른 선택이 허용되기 어렵도록 체제가 구성되어 있다. 생산요소로서나 관리체계로서 수리적 체계화 방식은 이 체제의 체계로서의 단일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뿐 아니라 체제유지의 규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거대세계체제는 기업조직처럼 자신의 외부에 그것의 역할을 규제할 심급을 가지지 못하며 구조적으로 자기성찰적 기능을 가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내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기 반성기능은 체제의 자기유지기제의 범위 내에서 수용되는 경향을 가지며 자기유지기제를 넘어선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기제 자체를 검토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 체제들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것은 체제의 효율성 때문에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 통합된 단일 체제가 반드시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그것의 비효율성은 그 체제 밖에서 그것의 목표와 기능을 비판적으로 점검할 적절한 심급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지구적 단일체제가 처한 상황이 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된다. 거대체제의 유지를 위해 체제유지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이 효율성의 유지는 시장기제를 통해 수행되는데 이같은 기제 자체를 점검할 심급은 두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하기 어렵다. 첫째는 그것이 단일체제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이미 지적된 바 체제를 유지하는 지식의 특정한 성격 때문이다. 자신의 밖으로 나가 전체를 보고 자신을 점검할 능력을 지니지 못한 일종의 공룡같은 모습을 띤 존재가 오늘 우리의 생존체제라면 지나친 비유일까?

오늘날 인간이 당면하는 문제들의 성격은 이전 시대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주요 문제들이 이전처럼 자연에서 제기되기보다 인간이 만든 삶의 체제 자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환경문제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 앞으로 생명공학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인간의 삶의 체제 자체가 인간에게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꺼리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전에 필연으로 인간을 억압하던 자연의 자리에 공통화된 인간의 삶의 체제 자체가 자리잡고 있는 형국이다. 그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단일화된 체제는 그 자체가 인간 자유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되어 있다. 인간의 자유가 선택에서 성립하며, 필연이란 선택이 없는 상황을 이르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는 단일화된 삶의 체제 자체가 인간 자유의 최대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단일화된 거대체제에 자기성찰적 기능을 부여하고 인간이 자연의 필연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했듯이 선택을 거부하는 이 단일체제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 이 거대체제 내에서의 삶을 살아갈 새로운 세기 인간의 과제가 될 것이다.